안녕하십니까? 지식캠퍼스의 김원중 교수입니다.
오늘은 논어의 제6강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쓰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평가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에 얽매여서 타인의
평가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되면 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되죠. 그다음에 또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

자신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순리대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무리수를 두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죠. 우리가 논어 첫머리에서 나오는 공자의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볼까요?

인부지이불온이면 불역군자호.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온, 글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온이라는 글자 아세요? 혹시

성낼 온 자인데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화가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화를 내지 않고

부글부글 끓는 듯한 표정을 내지 않으면 군자의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역설적으로 평생을 이 공자께서

주변에 나라의 군주들에게 어찌 보면 이렇다 할 만한
벼슬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를

지휘하면서도 덜 인정받았던 공자 자신에 대한 약간의 한탄도
배어 있지만 이 얘기는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어찌 보면 사람의 본심이지만
그러한 지나친 욕망을 버려야만 마음의 평정심이

유지된다라는 이야기겠죠. 특히 자기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공자는 어찌 보면 과시욕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의 자아가
위협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겠죠. 공자의 말을 한번

볼까요? 이런 말을 학이편 맨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환인지부기지하고 환부지인야라. 즉, 다른 사람이

나를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근심해라.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네 마음이 편하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알아줄 수 있도록 네 스스로 노력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타인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즉, 걱정할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공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혼돈합니다. 남들한테 인정받으면 우쭐하고 그렇지

않으면 침울해하고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중국을 자주 가니까
중국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메이꽌시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즉, 너랑 나랑 상관없어. 나 이 문제에 대해서
상관없어라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선과 관심 따위에는

나는 신경 안 써라는 의미가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랑 좀
다르죠. 저는 중국 사람들 우리랑 가치관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이제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불환무위하고 환소이립하라. 즉, 불환무위, 자리가 없다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거기에
설 수 있는 발을, 설 수 있는 까닭을 걱정해라. 그다음에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불환막기지하고 구위가지야. 그들이 알아줄 수 있게 되기를

구하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억지로 위에 거는
네 능력도 없으면서 맨날 자리 탓하지 말고 아래 구절,

불환막기지는 남들이 알아주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네 능력이 충분히 돼서 그 사람들이 너에게

그런 자리를 줄 때까지 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자께서는 무위, 자리가 없는 거.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는
능력은 있는데 왜 여기까지 승진 못했지? 나 능력 있는데

왜 내가 이 자리밖에 못하지? 하면서 자리 걱정을 많이 하죠.
자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또는 자리가 내가 예측한 거보다

또는 내가 생각한 거보다 낮아진 거 또는 낮은 것에 대해서
때로는 불만을 품고 하는데 공자는 거기서 소이립, 설 수

있는 이유와 까닭을 알아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냉정하게 보이지만 분명 공자가

봤을 때는 자리가 없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랑
같은 개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공자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군자는 능력이 없는 것을 근심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않는다.

거기서도 이것은 위령공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자왈 군자는
병무능언이요. 불병인지불기지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남을 탓하는 것 즉,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탓하지 말고 능력 부족을 탓하라는 공자의 말. 이 말은 어찌

보면 냉정해 보이지만 어찌 보면 대단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렇다면 공자가 이 말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공자가 진나라에 갔을 때입니다. 진나라에 갔는데 양식이
마침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수행하던 제자들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먹을 것도 없죠. 그다음에 병도 못 고치니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용감무쌍한 자로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한마디 던졌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자도 곤궁해질 때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공자가 한 말이 있어요. 군자는 곤궁함을 곤궁해도 즉, 굳게
지키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아무것이나 한다. 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남 자 있잖아요. 넘칠 남 자.
아무 짓이나 한다 이거죠. 즉, 군자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즉, 군자는 군주가 자기에게 자리를 주든 안 주든 또는
남들이 알아주든 않든 간에 자기의 분명한 소신을 갖고

행동한다. 그러나 소인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어려울 때 자신의 소신을 던져버리기도 하고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을 때 자기의 소신을 버리고 지조와 절도를 또

잃어버리고 꿋꿋함을 못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또 나는
능력이 있는데 남들이 평가해주지 않는다고 푸념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자, 진정한 고수는 어떻죠?
남이 알아주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충실하다 보면 언젠가 진면목이 찾아오죠. 논어의 구절에서
한 해의 추위가 찾아온 다음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세한연후지 송백지후조야라는 구절인데요. 사람의 진가라는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세상에 이름이 나는 것은 우리 누구나
또 지식인들 아니, 여러분들도 남들이 알아주고 여러분들이

자리를 갖고 다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어떤
자리가 없다고 해서 남들이 알아주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타인을 비판하고 또 자신을 자학하고 스스로 자학하고
이것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말은 세한연후지

송백지후조라고 하는 말은 공자가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서
다짐한 말이지만 우리가 또 한편으로써는 분명히 허명을

경계하고 거기서 어떻게 자신이 행동을 하면 결국은 훗날
훌륭한 자신의 진가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직장인 여러분들께서도 늘 타인과 나 사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빨리 인정받고 빨리 자리를 갖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긴 안목과 긴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자리와 알아주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